

“마라나타비전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상의 교회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을 “예수의 제자” 로 세우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가족 공동체” 만들기

모든 삶 속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기

Vision 1: 모든 교우들을 “예수의 제자” 로 세우기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 이를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애쓰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누구나 지향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지상명령의 핵심 또한 “제자 삼아라” (마28:19)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족속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교인들 (주일학교, Youth 등 포함)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시키기 원합니다.

Vision 2: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가족 공동체” 만들기

우리는 초대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모범으로 삼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2:42-47)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데, 버스 정류장과 같이 모였다 흩어지는 곳이 아니고 “또 하나의 확대된 가족”입니다. 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듯이, 우리의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확대된 예수 가족 공동체가 갖는 특성입니다. 이 사랑을 보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요13:35)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토대로 “예수 가족”끼리 더 밀접한 교제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Vision 3: 모든 삶에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 이 세상의 어두움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mission)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그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직장, 사업체,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총체적 선교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